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규탄한다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수도 테헤란을 공격했다.

미국은 핵 협상에서 이란을 압박하려고 2003년 이라크 침공 이후 최대 규모의 군사력을 중동에 결집시켰다. 그럼에도 이란이 2월 26일 제네바에서 미국의 요구에 굴복하지 않자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을 폭격했다.

이란은 보복에 나서고 있다. 카타르, 바레인,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UAE) 등에 있는 미군 기지를 폭격하고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이 중동 전체를 거대한 전쟁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다.

전쟁으로 중동 민중이 겪게 될 모든 고통의 책임은 오로지 미국과 이스라엘에 있다. 트럼프는 이란이 핵무기를 가져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 중동 유일 핵무기 보유국이자 미국 제국주의의 중동 경비견인 이스라엘의 핵무기 보유는 문제 삼지 않는다. 게다가 트럼프는 정보 기관들을 통해 이란 정권이 당장 핵무기 보유를 추구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트럼프가 이란 정권을 사악한 정권이라고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은 오로지 그 정권이 미국의 이익과 충돌을 빚어 왔기 때문이다.

지난 2년간 가자 전쟁 이후 현재 이란 정권은 이전 어느 때보다 약화돼 있다. 이런 상황을 틈타 트럼프는 이란 정권을 무너뜨리고, 중동 질서를 미국의 패권에 이롭게 재편하려 한다. 피에 굶주린 이스라엘 역시 이를 기회 삼아 경쟁국 이란을 무너뜨리고 중동 최강국으로 올라서려 한다.

요컨대 미국과 이스라엘의 패권을 위한 모험이 중동을 또 다시 거대한 전쟁의 불길에 휩싸이게 하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와 네타냐후는 민주주의 들먹일 자격 없다

트럼프는 이란 정권이 시위에 나선 자국민을 학살했다고 비난하며 공격을 정당화한다. 그러나 트럼프 또한 이민세관단속국(ICE) 등을 동원해 자국민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면서 그것에 맞서는 자국민들을 살해했다. 자국민을 학살·억압하는 친미 독재 정권들과, 어마어마한 인종학살을 벌이는 이스라엘을 지원하면서 말이다.

트럼프는 이란 반정부 시위대의 편을 참칭하면서 이번 공격으로 이란 정권을 무너뜨리겠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란인들의 생명과 정치적 자유는 트럼프의 관심사가 아니다. 트럼프는 이란인들 스스로 이란의 운명을 결정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역사를 보면 미국 제국주의의 폭격과 침공은 학살과 파괴만 낳았을 뿐, 민주주의를 가져다 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이번에도 미국·이스라엘은 이란의 초등학교를 폭격해 160명 넘게 살해했다.

트럼프와 네타냐후는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이란 민중의 친구가 결코 아니다. 이란인들의 진정한 해방은 미국·이스라엘의 폭격이 아니라 이란 대중의 투쟁으로만 이룰 수 있다.

트럼프와 네타냐후가 패배하기를 바라야 한다

트럼프가 중동에서 군사력을 휘둘러 성공을 거둘수록, 전 세계에서 곳곳에서 미국의 패권을 강화하려는 위험천만한 모험을 더욱 과감하게 벌일 것이다. 트럼프와 네타냐후가 패배하기를 바라야 한다.

이미 지난달 트럼프는 베네수엘라를 침공하며 미국 패권을 위해서 국제법이란 ‘민주주의’ 외피든 벗어 던질 태세가 돼 있음을 보여줬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인 인종학살에 박차를 가할 것이고, 전 세계 곳곳에서 전쟁 위험이 점점 커질 것이다. 동아시아와 한반도도 더욱 위험해질 것이다.

트럼프는 장기적으로 약화돼 온 미국 제국주의의 패권을 만회하는 데 혈안이 돼 있다. 상처 입은 야수가 더 위험하다는 것을 생각하면, 지금부터 미국 제국주의의 만행들에 맞서 싸우는 것이 중요하다.

2월 28일~3월 2일 미국, 영국, 독일, 캐나다, 모로코, 이라크, 한국 등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을 규탄하는 집회·시위가 벌어졌다. 3월 7일에도 미국과 영국 등에서 반전 시위가 열릴 예정이다. 국제적 반전 운동에 희망이 있다.

한국의 대학생들도 미국·이스라엘의 전쟁에 맞서 함께 행동에 나서자.

2026년 3월 2일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 2월 28일 자 성명을 일부 보강했다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노동자연대 학생그룹을
팔로우하세요!

 @ws.youthstu

 @ws.youthstu

 <https://youth.ws.or.kr>

 @ws.youthstu

 010-5443-2395

 youth@ws.or.kr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규탄한다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수도 테헤란을 공격했다.

미국은 핵 협상에서 이란을 압박하려고 2003년 이라크 침공 이후 최대 규모의 군사력을 중동에 결집시켰다. 그럼에도 이란이 2월 26일 제네바에서 미국의 요구에 굴복하지 않자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을 폭격했다.

이란은 보복에 나서고 있다. 카타르, 바레인,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UAE) 등에 있는 미군 기지를 폭격하고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이 중동 전체를 거대한 전쟁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다.

전쟁으로 중동 민중이 겪게 될 모든 고통의 책임은 오로지 미국과 이스라엘에 있다. 트럼프는 이란이 핵무기를 가져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 중동 유일 핵무기 보유국이자 미국 제국주의의 중동 경비군인 이스라엘의 핵무기 보유는 문제 삼지 않는다. 게다가 트럼프는 정

트럼프와 네타나후는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이란 민중의 친구가 결코 아니다. 이란인들의 진정한 해방은 미국·이스라엘의 폭격이 아니라 이란 대중의 투쟁으로만 이룰 수 있다.

트럼프와 네타나후가 패배하기를 바라야 한다

트럼프가 중동에서 군사력을 휘둘러 성공을 거둘수록, 전 세계에 서 곳곳에서 미국의 패권을 강화하려는 위험천만한 모험을 더욱 과감하게 벌일 것이다. 트럼프와 네타나후가 패배하기를 바라야 한다.

이미 지난달 트럼프는 베네수엘라를 침공하며 미국 패권을 위해 서 국제법이란 '민주주의' 외피든 벗어 던질 태세가 돼 있음을 보여 줬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인 인종학살에 박차를 가할 것이고, 전 세계 곳곳에서 전쟁 위험이 점점 커질 것이다. 동아시아와 한반도도 더욱 위험해질 것이다.

보 기관들을 통해 이란 정권이 당장 핵무기 보유를 추구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트럼프가 이란 정권을 사악한 정권이라고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은 오로지 그 정권이 미국의 이익과 충돌을 빚어 왔기 때문이다.

지난 2년간 가자 전쟁 이후 현재 이란 정권은 이전 어느 때보다 약화돼 있다. 이런 상황을 틈타 트럼프는 이란 정권을 무너뜨리고, 중동 질서를 미국의 패권에 이롭게 재편하려 한다. 피에 굶주린 이스라엘 역시 이를 기회 삼아 경쟁국 이란을 무너뜨리고 중동 최강국으로 올라서려 한다.

요컨대 미국과 이스라엘의 패권을 위한 모험이 중동을 또 다시 거대한 전쟁의 불길에 휩싸이게 하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와 네타나후는 민주주의 틀먹일 자격 없다

트럼프는 이란 정권이 시위에 나선 자국민을 학살했다고 비난하며 공격을 정당화한다. 그러나 트럼프 또한 이민세관단속국(ICE) 등을 동원해 자국민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면서 그것에 맞서는 자국민들을 살해했다. 자국민을 학살·억압하는 친미 독재 정권들과, 어마어마한 인종학살을 벌이는 이스라엘을 지원하면서 말이다.

트럼프는 이란 반정부 시위대의 편을 참칭하면서 이번 공격으로 이란 정권을 무너뜨리겠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란인들의 생명과 정치적 자유는 트럼프의 관심사가 아니다. 트럼프는 이란인들 스스로 이란의 운명을 결정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역사를 보면 미국 제국주의의 폭격과 침공은 학살과 파괴만 낳았을 뿐, 민주주의를 가져다 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이번에도 미국·이스라엘은 이란의 초등학교를 폭격해 160명 넘게 살해했다.

트럼프는 장기적으로 약화돼 온 미국 제국주의의 패권을 만회하는데 혈안이 돼 있다. 상처 입은 야수가 더 위험하다는 것을 생각하면, 지금부터 미국 제국주의의 만행들에 맞서 싸우는 것이 중요하다.

2월 28일~3월 2일 미국, 영국, 독일, 캐나다, 모로코, 이라크, 한국 등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을 규탄하는 집회·시위가 벌어졌다. 3월 7일에도 미국과 영국 등에서 반전 시위가 열릴 예정이다. 국제적 반전 운동에 희망이 있다.

한국의 대학생들도 미국·이스라엘의 전쟁에 맞서 함께 행동에 나서자.

2026년 3월 2일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 2월 28일 자 성명을 일부 보강했다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노동자연대 학생그룹을 팔로우하세요!

 @ws.youthstu

 @ws.youthstu

 <https://youth.ws.or.kr>

 @ws_youthstu

 010-5443-2395

 youth@ws.or.kr



미국·이스라엘 이란 공격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수도 테헤란을 공격했다.

미국은 핵 협상에서 이란을 압박하려고 2003년 이라크 침공 이후 최대 규모의 군사력을 중동에 결집시켰다. 그럼에도 이란이 2월 26일 제네바에서 미국의 요구에 굴복하지 않자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을 폭격했다.

이란은 보복에 나서고 있다. 카타르, 바레인,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UAE) 등에 있는 미군 기지를 폭격하고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이 중동 전체를 거대한 전쟁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다.

전쟁으로 중동 민중이 겪게 될 모든 고통의 책임은 오로지 미국과 이스라엘에 있다. 트럼프는 이란이 핵무기를 가져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 중동 유일 핵무기 보유국이자 미국 제국주의의 중동 경비견인 이스라엘의 핵무기 보유는 문제 삼지 않는다. 게다가 트럼프는 정

이스라엘의 규탄한다

트럼프와 네타냐후는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이란 민중의 친구가 결코 아니다. 이란인들의 진정한 해방은 미국·이스라엘의 폭격이 아니라 이란 대중의 투쟁으로만 이룰 수 있다.

트럼프와 네타냐후가 패배하기를 바라야 한다

트럼프가 중동에서 군사력을 휘둘러 성공을 거둘수록, 전 세계에서 곳곳에서 미국의 패권을 강화하려는 위험천만한 모험을 더욱 과감하게 벌일 것이다. 트럼프와 네타냐후가 패배하기를 바라야 한다.

이미 지난달 트럼프는 베네수엘라를 침공하며 미국 패권을 위해서 국제법이든 '민주주의' 외피든 벗어 던질 태세가 돼 있음을 보여줬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인 인종학살에 박차를 가할 것이고, 전 세계 곳곳에서 전쟁 위험이 점점 커질 것이다. 동아시아와 한반도도 더욱 위험해질 것이다.

보 기관들을 통해 이란 정권이 당장 핵무기 보유를 추구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트럼프가 이란 정권을 사악한 정권이라고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은 오로지 그 정권이 미국의 이익과 충돌을 빚어 왔기 때문이다.

지난 2년간 가자 전쟁 이후 현재 이란 정권은 이전 어느 때보다 약화돼 있다. 이런 상황을 틈타 트럼프는 이란 정권을 무너뜨리고, 중동 질서를 미국의 패권에 이롭게 재편하려 한다. 피에 굶주린 이스라엘 역시 이를 기회 삼아 경쟁국 이란을 무너뜨리고 중동 최강국으로 올라서려 한다.

요컨대 미국과 이스라엘의 패권을 위한 모험이 중동을 또 다시 거대한 전쟁의 불길에 휩싸이게 하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와 네타냐후는 민주주의 들먹일 자격 없다

트럼프는 이란 정권이 시위에 나선 자국민을 학살했다고 비난하며 공격을 정당화한다. 그러나 트럼프 또한 이민세관단속국(ICE) 등을 동원해 자국민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면서 그것에 맞서는 자국민들을 살해했다. 자국민을 학살·억압하는 친미 독재 정권들과, 어마어마한 인종학살을 벌이는 이스라엘을 지원하면서 말이다.

트럼프는 이란 반정부 시위대의 편을 참칭하면서 이번 공격으로 이란 정권을 무너뜨리겠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란인들의 생명과 정치적 자유는 트럼프의 관심사가 아니다. 트럼프는 이란인들 스스로 이란의 운명을 결정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역사를 보면 미국 제국주의의 폭격과 침공은 학살과 파괴만 낳았을 뿐, 민주주의를 가져다 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이번에도 미국·이스라엘은 이란의 초등학교를 폭격해 160명 넘게 살해했다.

트럼프는 장기적으로 약화돼 온 미국 제국주의의 패권을 만회하는 데 혈안이 돼 있다. 상처 입은 야수가 더 위험하다는 것을 생각하면, 지금부터 미국 제국주의의 만행들에 맞서 싸우는 것이 중요하다.

2월 28일~3월 2일 미국, 영국, 독일, 캐나다, 모로코, 이라크, 한국 등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을 규탄하는 집회·시위가 벌어졌다. 3월 7일에도 미국과 영국 등에서 반전 시위가 열릴 예정이다. 국제적 반전 운동에 희망이 있다.

한국의 대학생들도 미국·이스라엘의 전쟁에 맞서 함께 행동에 나서자.

2026년 3월 2일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 2월 28일 자 성명을 일부 보강했다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노동자연대 학생그룹을
팔로우하세요!**

 @ws.youthstu

 @ws_youthstu

 @ws.youthstu

 010-5443-2395

 <https://youth.ws.or.kr>

 youth@ws.or.kr

